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듣는 것 보는 것 다 불성이 있기 때문”

요즘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들의 공부도 춥고 덥고 떠나서 언제나 봄을 기다리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원심사상·법사상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심사상은 돌이 아닌 사상이요, 우주와 일체제불과 우리들이 모두 결합되어 돌이 아닌 사상입니다. 하다 못해 별레 한 마리로 빼놓지 않는 사상이죠.

또 법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업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심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나 아닌 나가 꼭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

것은 법사상과 원사상이 돌이 아닌 깨달음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거니와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대신 못해 줄 것이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똥누고 밥먹고 잡자는 것은 대신 못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홀로 와서 홀로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모두가 원사상을 제대로 알아야겠기에 돌 아닌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림·최주현

악인도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나쁜짓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천차만별것을 다 건집니다

가지고도 원사상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미생물에서부터 거둬들여 진화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나 마저도 공했다네 무엇을 내세워서 나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원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대로 원이기 때문에 누가 세운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됨이 없이 우리 몸을 일거수 일투족 다 움직여야 하는 그 기동이 있습니다. 이 몸은 바로 그 기동을 끼고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과 자기 근본의 기동이 어떻게 돌이 되었습니까?

법사상은 상대가 있어서 거기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업사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원사상은 그대로 자기 근본, 즉 말하자면 자기 불성 기동에 수레바퀴가 같이 끼어 돌아가는 원심력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써 주인공에다 늘, 모든 것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의 좋고 나쁜 것, 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은 '너만이 되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 또 놓고, 모두를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놓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법이 가만히 있으면 원사상이요, 생각을 하면 법사상인 것입니다. 또 몸이 움직여졌다 하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원심이 없이 돌아가는 끝없는 진리속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공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 중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중세이지만 실은 하세계·중세계·상세계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기에 내 마음으로 삼세를 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자기 가정생활에서 방금 말한대로 놓는다면 분명히 다 놔주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줄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앞에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입력되어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워나갈 때에 모두들 이름 찾고 형상 찾고 말씀 하나를 들을 때에 도 가볍게 들으시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어떠한 걸 보고 듣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공에다 '아,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너 나오게 놔주라' 하고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나? 책을 하나 보더라도 내 주인공이, 말하자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

## “생활자체가 과학이며 의학·천체 물리학” “몸과 자기 근본의 기동 둘 일수 없습니다”

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었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받을 어찌 알았으리까?”하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자동적으로 돌리고 내게 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소리고.

### 불기둥끼고 바퀴처럼 돌아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면 얘기하고 말하고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정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번 말했다 하면 그 즉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말하고자 할 때는 바로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 찰나 진, 한 찰나 후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화해서 나뉘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는 그 움직여짐, 그렇게 나뉘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애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서 걸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는 소로 살던 습을 놓지 못해 또 소

로 태어나고, 뱀도 뱀의 습 때문에 뱀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도 역시 생각 없이 그냥 살다보면 회향을 잘못해서 도로 중세계의 그 차원에, 그 삶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찰 살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돌고 도는 이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깨우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직여주려 한다면 사실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수레바퀴와 같이 중심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불성은 움직여진 않아요 힘을 배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생애 태어날 때는 차원과 모습 이 지금까지처럼 고통받게 나오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뿐만 아니라 남들도 견져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 있어야 다른 우주세계나 은하세계 또는 달과 별과 해를 다 자기로 삼아서 이 세상을 골고루 둘러보며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지만 어떤 것을 막론하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은 나쁘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놓고 한군데로 놔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덩이 그 구덩이 때문에 들어가는 구덩도 그 구덩이 되어야 하지요. 누구나 그걸 알아야만 그 자체도 다 없는 자유자재권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건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건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돌이 아니다 하는 것도 어떠한 꿈을 꾸거나 귀신이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로 들어가면 바로 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하난데 내 자신을 허공에 꼭 차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마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쁜 짓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천차만별의 것을 건진다 고 하는 겁니다.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공부란 하면 하나가 열이 되고 백도 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진리 자체가 바로 과학이며 의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철학입니다. 어느 것도 아니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은 웃이기 때문에 한 찰 지나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웃을 입었을 때 자유권을 가지고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돌이고, 날 줄 안다면, 들고 날 줄 안다면 죽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워져 있음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심력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을 하나로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공'을 빌 공(空)이라고 그런 뜻은 뭔가? 바로 몸과, 그 불성의 기동이라 해도 좋고 물질계에 상대하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45)

## 임금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나면...

“자기를 형성시킨 그 주인공만 믿고 살면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주인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 일 저일 저지르곤 하니 주인공은 뒷방 신세가 된 것이다. 주인공은 '어디 너 하느대로 두고 보리라' 하며 팔뚝을 끼고 있는 격이다. 무엇이 참으로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중생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주인공을 굳게 믿는 것 외에 중생이 할 일이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맡겨 놓았다가 원하는 일들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고 맡기는 철나인데 그런 걱정할 새가 어디 있겠는가.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철석같은 믿음 속에 일체가 다 들어 있으니 믿음이면 그뿐이다.”

믿고 맡기는 데는 어떤 동거나 목적이 전제될 수 없다. 깨닫기 위해서는 믿고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을 이름이지 거기에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믿고 맡기면 좋더라 할 때, 혹은 믿고 맡기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지 동거나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맡김에서 나타날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은 자신이 이미 목적이 있는 계산에 빠져들었음을 뜻한다. 실리를 따지는 세속적인 이해타산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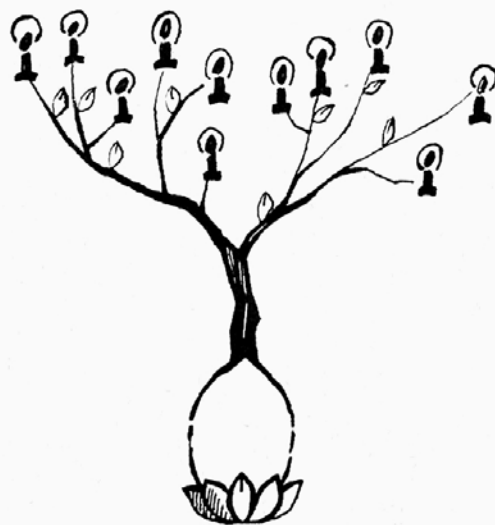
믿음은 오로지 믿음 그 자체로서 순수해야 한다. 맡김은 오로지 맡김 그 자체로서 전목적이어야 한다. 거기엔 아무런 계산도 의도도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해서도 안된다. 오로지 순수한 믿음과 맡김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순수한 믿음·맡김은 뭔가?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 왔던 그 '나'가 죽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위의 주인공노릇을 해오던 그 '나'가 주인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마치 임금이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다. 자리를 물려주진 물려주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나아가서는 받을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조차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양위(讓位)인 것이다.



그것만이 순수한 믿음·맡김의 참 모습인 것이다. 고로 믿고 맡기기로 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임금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 주인공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주인공을 새 임금으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내가 나서서 이일 저일 주재하지 말고 새 임금에게 모든 것의 처리를 맡겨야 한다. 거기가 바로 모든 권리와 명령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체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실체가 있는 듯이 여겨지는 현상계의 근원체이다.

'나'라는 이 생명체도 그 자리에서 나뉘는 것이요 그밖의 모든 생명현상이나 자연현상도 그 근원체에서 나뉘는 것이다. 고로 주인공은 한마음으로 전체이며 모든 것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전체가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고로 주인공이 무엇을 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본래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의 참된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주인공은 모든 것의 근원체로서 모든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있게 하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주인공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고로 주인공 자리는 무엇과도 비할바 없는 무한의 힘이 생색하는 자리, 생명력이 약동하는 전체의 자리이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따위의 수식어를 붙일 것인가.

믿고 맡김은 힘이 생색하는 원천, 생명력의 근원체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급기야는 그것과 하나되는 길이다. 고로 일상속에서 믿음·맡김의 수행을 하면 누구나도 점차 생명력이 충만해 짐을 느끼게 된다.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그렇다. 제왕의 측근이 미관말적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처럼. 따라서 믿음·맡김이 깊을수록 그의 한 생각이 더 큰 에너지로 나뉘게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전까지의 세속적인 능력 따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원천에서 나오는 힘과 맞닿아 있으니 세속의 지능이나 능력쯤이야겠는가. 그래서 일체를 맡기면 주인공이 다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맡김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협찬: 이 경 민